

선녀와 나무꾼

노모와 함께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나무꾼에게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였다.

나무꾼은 노루를 수풀 뒤에 숨긴 후, 사냥꾼을 멀리 보내버렸다.

노루는 나무꾼에게 소원을 물었다.

"소원? 나의 소원은 어머니와 함께 살 예쁜 색시이지."

나무꾼의 대답을 듣고, 노루는 깊은 산 속의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무꾼에게 중요한 금기를 덧붙여서 말해주었다.

"나무꾼님.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됩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하였고, 한 선녀만이 울며 연못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선녀님, 울지 마세요."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와 혼인하여 살게 되었다.

아이 둘을 낳고 살던 즈음에, 나무꾼은 노루가 말해 준 금기를 잊고 숨겨뒀던 날개옷을 선녀에게 꺼내주었다.

그러자 날개옷을 본 선녀는 망설임 없이 하늘로 향하였다. 두 아이만을 품에 안고, 나무꾼을 지상에 남겨둔 채, 선녀는 하늘로 날아갔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노루가 다시 나타났다.

노루는 정월 초하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나무꾼에게 알려주었다.

노루 덕에, 나무꾼은 하늘에서 선녀와 아이들과 재회하여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행복한 날들도 잠시, 나무꾼은 고향 집에 두고 온 노모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선녀가 나무꾼에게 천마를 하나 내주며 말했다.

"천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보고 오세요. 다만 땅에 발을 디디면 하늘로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나무꾼은 걱정하지 말라며, 천마를 타고 노모를 만나러 땅으로 다시 내려갔다.

매일같이 나무꾼을 기다리던 노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무꾼을 보고 기뻐하며, 준비한 호박죽을 나무꾼에게 건네주었다.

나무꾼은 천마 위에서 호박죽을 받아 맛있게 먹으려 했다.

그러나 나무꾼은 뜨거운 호박죽을 천마 등에 쏟았고, 결국 뜨거움을 참지 못한 천마가 나무꾼을 땅에 떨어트린 후 하늘로 날아갔다.

그날 이후부터 나무꾼은 땅에 남아 노모와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슬픈 나무꾼은 매일같이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만 보며 울었다.

울고 또 울던 나무꾼은 죽어 닭이 되었다.